



반려동물이 주인과 10m이상 떨어지면 알람 울려

2015년 2월 설립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네오팝의 올해 예상 매출은 5억원이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서영진 대표는 성장을 낙관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LED(발광다이오드) 목걸이인 펫밴드의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다. 서 대표는 “세계 반려동물 시장은 2003년부터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랑용 아이템을 추가해 시장 다각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LED로 반려동물 식별 펫밴드는 반려동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위치추적 기능 등이 들어있는 LED 목걸이다. 반려동물이 주인에게서 10m 이상 떨어지면 알람이 울려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밤에는 LED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한다.

서 대표는 애원견을 키우다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밤 산책 중에 애원견이 자전거에 치일 뻔했는데 눈에 잘 보이도록 LED 인식표를 달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상용화된 제품이 마땅찮아서 직접 개발했다”고

말했다. 자기 이름을 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서 대표는 “반려동물 시장은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밤에는 LED 불빛 비쳐 교통사고 등 방지 효과

액상실리콘으로 제조 얇게 만들어 거부감 줄여

응원도구 ‘암밴드’ 개발 일본시장서 판로 개척

반려동물시장에 대기업까지 뛰어들고 있지만 서 대표는 자신만만했다. 기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펫밴드는 반려동물이 착용하는 웨어러블 제품인 만큼 몸에 접촉했을 때 거부감을 줄이는 기술이 관건이다. 네오팝은 액상 실리콘을 활용



서영진 네오팝 대표는 “반려견 목걸이로 개발한 LED 펫밴드가 지금은 콘서트장 응원팔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 목걸이를 얇게 제작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서 대표는 “관련 특허를 아시아 네 개 회사만 갖고 있다”며 “대기업 제품도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네오팝은 특허기술 다섯 개를 보유하고 있고 30건을 출원했다.

◆응원도구 암밴드 개발 네오팝은 사람용 웨어러블 시장에도 진출했다. 일본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결과다. 서 대표는 “최근 CJ 계열사 한 곳에서도 약 1만 개를

인을 세웠다. 한국보다 반려동물이 2-3배 많고 시장 규모도 10배나 커서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일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품을 보고 아이돌그룹 콘서트에서 사용할 응원도구인 암(arm)밴드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암밴드는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띄우거나 LED 불빛을 쏘는 팔찌로 활용되고 있다. 서 대표는 “최근 CJ 계열사 한 곳에서도 약 1만 개를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월의 으뜸중기 제품 △여명테크-막힘 해소 초절수 양변기 △유투-물에 빠진 벽지 △네오팝-LED 펫밴드 △케이와이파-리튬 자동차 배터리

주문했다”며 “가격은 3만원 정도인데 반응이 좋아 10만 개가량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제품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라 이제는 해외 거래처 확보 등 영업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며 “마케팅 역량 강화를 단기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목표는 미국 시장 안착이다. 그는 “미국이 진입하기 까다로운 시장이라 자금력, 판매 채널 등 보완 요소가 있지만 규모가 커 안착하면 사업이 확실한 계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o@hankyung.com

면세점·맥주시장에 中소 진출 법안 발의 ‘反재벌 공약’ 설계한 전직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지명하면서 정부 출범 166일 만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오른팔’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다.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반(反)재벌정책 공약을 가다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대 국회에선 대기업 집단에 집중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중소기업에 취약하다는 분배형 정책을 주로 발의했다. 맥주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홍 후보자가 중소기업법 및 4차 산업 관련 현장 경

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당초 청와대는 벤처기업 출신 기업인을 물색했지만 후보자들이 주식배지신탁 의무와 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벤처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며 환영성명을 냈다. 다만 일각에선 “새로 출범하는 부처인 만큼 정책을 밀어붙일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며 “현역의원이 아닌 홍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미현/이우상 기자 mwise@hankyung.com

“K바이오, 글로벌 네트워크부터 쌓아야”

플로레스 바이오센추리 대표 ‘코리아바이오폴러스’ 강연



“한국의 바이오헬스는 신약 개발, 의료기기, 빅데이터 등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를 잘 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가치를 알기 위해 주요 글로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플로레스 바이오센추리 대표(사진)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코리아바이오폴러스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바이오센추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지다.

그는 “바이오 경쟁력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3위, 세계에서 13위 수준”이라며 “한국 혁신가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물론 공학 및 빅

데이터와 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빅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 판단에서다. 신약후보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는 임상 목표 설정 및 시험 설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세계적 바이오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플로레스 대표는 “한국의 임상 데이터와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글로벌 신약으로의 가능성을 확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글로벌 바이오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MIT ILP)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MIT ILP에는 화이자 머크 GSK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SK하이닉스 등 네 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바이오산업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샘, 3분기 매출·영업이익 호조

작년비 10.9%·16.8% ↑

종합 가구·엔터테인먼트인 한샘이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호실적을 거뒀다. 한샘은 3분기 매출이 5265억원, 영업이익은 493억9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작년 3분기 대비 10.9%, 16.8%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2분기(328억원)와 비교해 50%나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부엌과 욕실 등 인테리어

사업부문이 17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부엌가구용통합사업에서 2385억원, 기타 부문은 1135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조5029억원, 영업이익은 1230억원이다.

한샘 관계자는 “직영 플래그십스토어와 대리점 등 매장이 꾸준히 늘면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중 피아노 교육시장 진출 영창뮤직, 아메이체와 제휴

악기전문기업 영창뮤직이 중국 피아노 교육 시장에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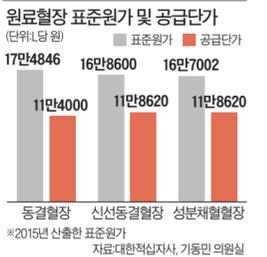
영창뮤직은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피아노 교육업체 베스틴인 테너셔널 피아노 아트센터와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창뮤직과 베스틴은 2020년까지 중국에 베스틴&영창 피아노 스튜디오(BYS) 가맹점 500여 곳을 열기로 했다. 베스틴은 교재와 강사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영창뮤직은 악기 공급과 서비스관리 등을 맡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국민 헌혈로 모은 혈장 적십자, 제약사에 혈값 판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제기



대한적십자사가 국민 헌혈로 모은 혈장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제약회사에 판매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49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십자사가 혈장을 혈값에 공급해 제약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20년째 혈액제제 가격은 묶여온 채 혈장 가격만 올라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녹십자와 SK플라스마에 성분채혈혈장을 표준 원가 대비 65~70% 수준으로 공급했다. 성분채혈혈장은 혈액을 채취한 뒤 혈장 성분을 분리한 것으로 혈액제제 원료로 쓰인다.

적십자사가 공개한 성분채혈혈장의 L당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납품가격은 11만8620원으로 5

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그러나 혈액제제사업이 제약사에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적십자사의 혈장 공급가격은 1998년 L당 7만9800원에서 2008년 10만8620원으로, 2014년 11만8620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원료로 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 가격은 1998년 8만9200원에서 2008년 8만873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인하됐다. 이만 9만3549원으로 조정됐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양평 전원주택부지 분양 (양평군 양동면)

분양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학리 715-1번지 일원

분양 개요
- 보전관리지역
- 제2 영동고속도로 동양평·C에서 3km(서울에서 40분)
- 양평군 내 최상의 조망권 확보(정남향의 오크밸리 리조트 전망)
- 부지 정비 및 기반 시설 완비,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완료

분양 내역

No.	전용 면적	공유 면적	분양 면적
1	1,413㎡	186㎡	1,599㎡ (484평)
2	1,033㎡	136㎡	1,169㎡ (355평)
3	902㎡	119㎡	1,021㎡ (309평)
4	860㎡	113㎡	973㎡ (294평)
5	794㎡	105㎡	899㎡ (272평)
6	1,873㎡		1,873㎡ (567평)
7	903㎡	93㎡	996㎡ (301평)
계	7,778㎡	752㎡	8,530㎡ (2,580평)

파격 조건

분양 문의: 02-2058-1375 / 010-4640-6746